

바람직한 環境政策이

일시 '88년 7월 13일 10시 30분
장소 경기도 청평 우인연수원

- 사 회 안기희 (본협회 개발부장)
토론자 오세창 (대구대학교 지리학과·교수)
신진명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석사과정)
장상호 (대구대학교 법학과 4학년)
최미영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석사과정)
고화석 (전남대학교 생물학과·박사과정)
황영진 (전남대학교 생물학과·석사과정)
김복현 (경희대학교 환경보호학과·석사졸업)



필요한 때입니다

· 안기회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환경보전운동이 대개는 구호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앞으로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토론회는 환경관련학문을 하고있는 대학생들의 견해를 취합, 환경보전 정책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계사적 관점에서 환경오염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세창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즉 2백년 남짓한 기간일 것이며, 산업혁명의 발생지인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오염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일

것입니다. 60년대 공업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70년대들어 본격적으로 공해문제가 대두됐으며 당시 정권은 「성장」의 측면에 입각, 공해문제 거론자를 안보적 차원에서 제재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환경오염방지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그 심각성이 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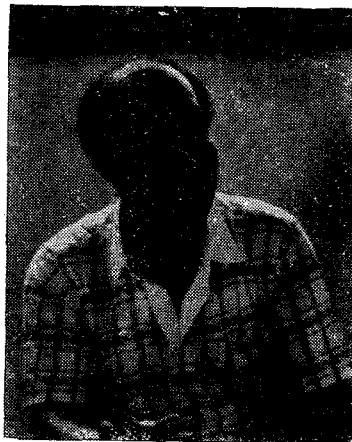
안기회 박대통령의 1차 경제개발에 의해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개발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보면 개발과 보전이라는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봤으면 합니다.

황영진 다목적 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공 댐이 축조되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어류의 경우 산란장이 중요하며, 수질의 D O는 더욱 중요합니다.

인공댐이 축조되면 용존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함량이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산란장이나 어로가 없어지므로 인해 생태계 파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낙동강이나 영산강 하구엔 축조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그 좋은 예가 되지요.

때문에 개발은 인간에게 이익도 되지만 반대급부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토론에 참석했던 김복현, 황영진, 고화석 (좌로부터)

고화석 저는 전남지역 일대의 이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해남 대흥사 일대의 경우 아직은 이끼의 분포도가 많은 것으로 보아 공해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포 일대의 경우는 SO₂의 영향으로 폐해가 있었고 광양만 일대도 폐해도가 심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중심사 계곡은 그다지 피해가 없었지만 시내의 가로수 주변은 이끼가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인 SO₂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끼라는 것이 오염물질에 아주 민감해 환경오염도 측정의 지표가 돼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끼가 없는 곳은 개발이 된 곳, 즉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거나 심한 곳이며 없는 곳은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라 보면 맞겠습니다.

덧붙여 이화학적인 기기를 사용치 않고더라도 생물학적 균락만 살펴도 오염도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기희 개발은 60년대 부터 시작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즉 보전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현 70년대말 부터 환경정책이 체계를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늦은 상태로 우리가 시대조류에 어쩔 수 없이 편승한 수동적인 입장이지요.

장상호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후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그 규제가 미시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없고 규제 조항 역시 미흡해 보다 강력한 법의 제정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폐수 처리시설 해놓고 가동을 안하는데 그것은 법의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데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안기희 대개는 법이 환경정책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경정책법의 흐름이 환경사를 이야기하는 모토가 되겠지요.

우리의 경우 환경보전정책이 국지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범지구적 차원에서 거론되는데 산성비, 오존층 문제가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수질오염문제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신진명 가정의 생활폐수, 공장폐수에 의한 오염은 강에 국한 시키지 않고 넓게는 해양 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문제를 말고 있는 환경청은 해양에 대해 소관을 달리하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미영 주부들이 사용하는 합성세제 등이 제 3차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것이 하천에 유입됐을시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식수와도 직결되는 문제죠. 따라서 주부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구조의 전환이 요구될



토론에 참석한 대학인. 좌로부터 최미영, 장상호, 신진명

니다.

정부의 환경관련인 교육에 있어서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황영진 제 생각으로는 환경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운동차원의 환경보전운동이 이제는 서서히 기성세대와 차이를 두고 새로운 양태로 전개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세창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이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물이 오염됐다 해서 자기들이 마실 물을 준비해 온다면 그보다 더한 망신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절대빈곤의 시대였으므로 공해문제가 도외시됐지만 이제는 환경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구조적인 차원을 벗어나 생활의 질을 높



일수 있는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는 관주도에서 벗어나 순수민간운동으로의 정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기희 그렇죠.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전망이어서 중앙통제적인 차원은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요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 배양이 시급하다 하겠습니까.

환경오염방지에 있어서도 자치적 해결이 필요로 하겠지요.

민간 차원의 환경보전운동의 전개 또한 그러한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고화석 환경교육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릴적부터의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이란 자연과 벗하는 습관을 길러주면서 오염의 피해상도 일깨워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메밀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키우게 해보는 것입니다. 오염이 안된 지역에서 자란 메밀과 심한 곳에서 자란 메밀을 아이들이 직접 관찰하게 해보면 이것이 곧 공해문제에 대한 산교육이겠지요.

안기희 광주쪽의 대기오염은 어떻습니까.

고화석 광주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심하고 여천지역의 경우는 소나무가 벌겍게 될 정도로 그 도가 심합니다. 그곳은 특히 후각으로 느낄 정도로 심합니다.

황영진 그 지역은 밤에 유독 가스 때문에 문을 열어 놓지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신진명 수질오염의 심각성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주같은 경우도 수도물을 틀면 염소 소독내가 심합니다. 사람들은 되도록 약수등을 이용하려고 하지요. 수도물을 불신케 만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와도 직결되는 문제지요. 염소소독의 과다소비도 문제구요.

최미영 물 문제의 원인은 기업주들의 방류수 물처리제에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너무 방관하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는 식이어요.

김복현 환경문제는 리사이클링되기 때문에 수질·대기·소음·진동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악취문제는 '88 올림픽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등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내공기오염에 있어서도 말이죠. 어떤 기업가는 실내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공기정화기를 생산·판매하더군요. 그런데 이 공기정화기의 활성탄이 입자의 0.3마이크론이상까지 잡을 수 있는 필터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필터가 100마이크론 정도로 허술해요. 사람의 코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이런 기업가들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게 단적인 예인데 이윤추구를 위해 폐수의 무단방류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상호 공해문제중에 가장 심각한건 아무래도 수질이겠지요. 공장이 세워질 때 용수가 많이 필요해 하천주변에 입지하는데

앞으로는 하천주변에 위치는 하대 하천의 바로 옆이 아닌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해 무단방류하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영진 공장지대의 상류 입지는 되도록 막아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상류 오염으로 인한 연쇄반응을 막는 효과를 거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읍니다.

안기희 직업병이라 일컬어지는 공해병, 수은중독이라든지 카드뮴중독등의 문제도 최근 심각하게 노출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아야 하겠읍니다.

김복현 사실 직업환경은 현대인에게 있어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80%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실내환경이나 작업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걸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커멓게 나오는 연기랄지, 더럽혀진 물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지하도의 오염, 실내의 공기오염, 작업장 내의 시설 미비로 인한 각종 유독가스오염은 우리가 간과해 버린 좋은 예입니다. 그 안에는 중금속도 있어 진폐증, 수은중독등을 유발합니다.

예를들어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작업한다 하면 나쁜 공기가 빠질것 같읍니까? 담배연기, 먼지등은 안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폐에 침착된다는걸 모두 알

아야 합니다.

모기약을 몸에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은을 몸에 바르는 것 아납니까?

안기희 사실 살펴보면 우리는 거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바다도 오염이 안됐다고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장상호 해양오염의 주 원인은 임해공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화석 영향평가의 경우 공단이 입지된 다음에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버리는 사후약방문식입니다.

안기희 일본에서는 그런 점들 때문에 환경사전영향평가 라고 해서 사전(事前)이란 말을 쓰더군요.사전에 하지 않는 영향평가는 정책관리자에게 하나의 면죄부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후(事後)영향평가입니다. 한강개발도 사후, 낙동강개발도 사후,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다를 바 없죠.

황영진 개발을 하고 난 후에 영향평가를 한다하더라도 개발전에 데이터가 있어서 사후 영향평가를 할 때 비교자료로 삼아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자료가 없어 상당히 애를 먹읍니다. 비교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 백크제도가 필요로 합니다.

오세창 지역 주민의 사전 참

여도 필요합니다. 주민이 자기 지역 개발문제에 참여, 주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지요. 공단이나 공장이 입지함으로 인해 소득도 주민에게 돌아 가고 또 각종 피해 요인인 폐수, 소음등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수없이 왕래한다면 그 지역주민들로야 자식들의 안전을 생각해 당연히 공장입지를 반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주민과 합의해 등하교 시간에는 통행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신진명 환경이란 학문이 원래 종합과학적인 측면이 많아 학교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공학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경희대나 전남대는 자연생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

니다.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학문의 제영역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일도 환경학의 발전을 위해 매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체계화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안기희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나라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범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당장 우리 주변의 중공, 일본등의 환경법제나 정책등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보전에 사명을 다할 여러분의 의지나 계획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며 이 자리를 끝냈으면 합니다.

고화석 저같은 경우는 순수 과학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 다. 앞으로 대기오염분야에 대

한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Method개발에 힘써보겠습니다.

황영진 생태연구에 노력해 수질오염 규명에 정진하겠습니다.

김복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에 주력할 생각인데 컴퓨터 공부를 많이 해 환경오염방지의 과학화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신진명 폐에너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너무 무심경합니다. 불란서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작정입니다.

장상호 여러 학행들이 이야기 한 것을 현실화 시키자면 합리적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 일조하고 싶습니다.

최미영 수질오염에 있어서 아직도 연구가 미진한 분야가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분야에 대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리 전정희>

